

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2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일반개황 | 1 |
| II. 경제동향 | 2 |
| III. 정치·사회동향 | 6 |
| IV. 국제신인도 | 7 |
| V. 종합의견 | 9 |

I. 일반개황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면적 | 1,964천 km ² | GDP | 14,078억 달러 ('15) |
| 인구 | 121.1백만 명 ('15) | 1인당 GDP | 9,542 달러 ('15) |
| 정치체제 | 대통령중심제 | 통화단위 | Peso(Ps) |
| 대외정책 | 친서방 실리주의 | 환율(달러당) | 15.85 |

- 멕시코는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석유, 은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GDP 기준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임.
-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조세, 에너지, 통신 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, 사회전반에 만연한 마약 관련 범죄로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- 멕시코는 NAFTA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, 2015년 기준 미국의 총 수출 중 15.7%, 총 수입의 13.2%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| 구 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^e | 2016 ^f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성장률 | 4.0 | 1.4 | 2.3 | 2.5 | 2.6 |
| 재정수지 / GDP | -3.8 | -3.7 | -4.6 | -4.0 | -3.5 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4.1 | 3.8 | 4.0 | 2.8 | 3.1 |

자료: IMF

□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폐소 약세, 미국경제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소폭 개선

- 2014년에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부문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2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 2015년 경제성장률도 전반적 수출감소*에도 불구하고 자국 통화 약세, 자동차부문 수출 확대 등으로 2.5%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.

* 유가하락, 세계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2009년 이후 최초로 수출실적 감소

- 2016년에도 환율절상 지속 및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수출실적 개선, 최저임금 인상 및 낮은 실업률에 따른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됨.

□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안정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시현

-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계 유가하락 및 현지 통신요금 인하 등에 따라 2.8%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, 2016년에는 통화약세에 따른 수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됨.

- 멕시코 중앙은행은 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~4% 구간으로 설정하여 관리(목표 수준 : 3%)하고 있으나, 시장의 통화약세 풀림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2월 이후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*한 바 있음.

* 기준금리 : 3.0%('15.11) → 3.25%('15.12) → 3.75%('16.2.17)

□ 비석유부문 세수 증대, 인프라 지출 감소 등으로 현 재정적자 수준 유지

- 취약한 세수기반, 국제 유가하락 추세 속 높은 원유 세입의존도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연금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, 연료보조금 지급 등으로 2014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4.6% 수준까지 확대 됨.
- 2015년에는 세제제도 개혁('13년)에 따른 비석유부문 세수 증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4.0%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정부의 예산지출 감소노력으로 동 적자비중이 3.5%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 지속

- 2014년 기준 멕시코 수출의 80.2%, 수입의 48.8%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이며,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체의 약 50%를 차지하는 등 대미 경제 의존도가 높음.
- 멕시코 정부는 TPP 가입, 브라질간 수입관세 폐지품목 확대 추진, EU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개시 등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, 높은 대미의존도를 경감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됨.

□ 원유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로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

- 원유가 멕시코 재정수입의 1/3에 달하는 등 원유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, 수출의 약 11%를 차지하고 있음. 이에 따라 멕시코는 원유 수출 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.
- 멕시코 정부는 연간 헤지프로그램*(1년 수출물량에 대해 풋옵션 계약 매수)을 통해 유가 하락위험을 일정부분 관리하고 있고, 통신·에너지 시장 개방 등에 따라 향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증가가 예상되어 대규모 재정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임.

* 동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GDP대비 약 0.5% 수준의 수익보전 시현(2015년 기준)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

- 멕시코는 아연(매장량 세계 5위), 셰일가스(5위), 동(5위), 은(6위)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석유생산량은 세계 10위(중남미 1위),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3위(중남미 1위) 수준임.
- 또한, 멕시코는 GDP 1조 달러 이상, 인구 1억 이상인 경제대국이며, 15~64세 인구가 전체의 65.9%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, 높은 인구증가율, 임금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됨.

□ NAFTA 및 TPP 회원국으로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

-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, 북쪽으로는 미국과 3,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또한,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및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, 2015년 기준 미국의 총 수출 중 15.7%, 수입의 13.2%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임.

다. 정책성과

□ 에너지, 통신 등 주요 산업 개방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 적극 추진

-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부문을 개방하는 에너지개혁법(2013.12월) 및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확대하는 방송통신개혁법(2014.7월) 제정 등을 통해 중요 산업에 대한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.

- 2016년 2월 현재 라운드원(Ronda Uno)* 유전개발 4차 입찰이 진행 중이며, 독점 시장이던 통신산업의 경우 AT&T, Virgin Mobile 등 유수의 해외 통신사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.

* 멕시코 정부가 우선권을 갖는 라운드 제로(Ronda Cero)와 달리 민간부문에게 개방된 광구로 작년 하반기에 1~3차 입찰 실시(낙찰률: 1차(14.2%), 2차(60%), 3차(100%))

- 세수확대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조세개혁법(2013.11월)을 제정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, 주식처분소득 및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금 등을 신설하였으며, 2018년까지 GDP의 2.5% 규모의 세수확대를 목표로 설정함.

3. 대외거래

□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,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안정적

- 상품수지,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, 교포 송금* 등 안정적인 경상이전수지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3년 이후 2%대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.

* 2015년 해외거주국민의 국내 외화송금액은 244.7억 달러로 2008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

- 2016년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및 폐소화 약세 등에 힘입어 적자 수준은 GDP 대비 2%대를 유지할 전망이다.

□ 외채규모 증가,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외환상환능력 다소 악화

-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차입 증가 및 해외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 및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, 외환보유고는 환율방어 등으로 2015년에는 감소*함.

* 1994년 이후 멕시코 외환보유액이 최초로 감소했으며 감소폭도 최대치를 기록

- 멕시코 정부는 IMF와 720억 달러(472.92억 SDR)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(FCL) 차관을 연장(2014년 11월)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외환유동성위기에 대비하고 있음.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^e | 2016 ^f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 상 수 지 | -16,364 | -30,469 | -24,983 | -27,901 | -24,291 |
| 경 상 수 지 / GDP | -1.4 | -2.4 | -1.9 | -2.4 | -2.0 |
| 상 품 수 지 | 291 | -909 | -2,573 | -14,460 | -15,020 |
| 수 출 | 371,442 | 380,729 | 397,866 | 380,772 | 390,006 |
| 수 입 | 371,151 | 381,638 | 400,440 | 395,232 | 405,026 |
| 외 환 보 유 액 | 167,098 | 181,019 | 195,917 | 177,975 | 170,674 |
| 총 외 채 잔 액 | 348,945 | 406,042 | 432,602 | 445,237 | 491,985 |
| 총 외 채 잔액 / GDP | 29.4 | 32.2 | 33.3 | 38.1 | 44.9 |
| D . S . R . | 17.7 | 10.1 | 12.2 | 13.8 | 11.8 |

자료: IMF, EIU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제도혁명당(PRI)의 정권 탈환 및 연정정부의 과반의석 지속

- 2000년까지 71년간 장기 집권하였던 중도좌파 정당인 제도혁명당(PRI)이 2012년 7월 실시된 대선에서 자당의 페냐 니에토(Pena Nieto)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정권 회복에 성공함.
- 제도혁명당은 지난 2012년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에서 상·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후 녹색당(PVEM) 및 신동맹당(PANAL)과 연정을 구성하였으며, 상기 집권연정은 2015년 7월 실시된 하원 중간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(260/500석)에 성공함.
 - * 제도혁명당 집권연정(62석)은 상원(총 128석)에서는 과반의석 미달

2. 사회안정 및 소요·사태

□ 부정부패, 치안불안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 지속

- 만성적인 정경유착스캔들, 높은 살인률*, 마약관련 치안불안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.
 - *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살인률 기록(2011년~13년 평균, World Bank 기준)
 -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5~16년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범죄 관련 지표는 140개국 중 최하위권*을 기록함.
 - * 테러리즘 관련 비용(92위),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(135위), 조직범죄(136위) 등
- 멕시코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조직을 주정부 경찰로 대체하는 치안개혁 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임.

3. 국제관계

□ 대미 관계 강화 및 교역국 관계 확대 모색

- 니에토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약밀매 등 치안 문제, 불법이민 문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 - 또한, 2012년 9월 미국,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 공식가입하고, 2012년 7월 콜롬비아, 칠레, 페루, 멕시코간의 지역통합체인 태평양동맹(Alianza del Pacifico)* 결성하는 등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.
- * 태평양동맹: 콜롬비아, 페루, 칠레, 멕시코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/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중장기 외채 중심구조 등으로 외채상환태도 및 국제금융시장 평판 양호

- 낮은 단기외채 비중, 외환보유액 규모, 확보한 IMF 크레딧라인 규모 (720억 달러)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.
 - 또한, 2015년 세계 최초 100년 만기 유로화채권(15억 유로) 발행 등 멕시코 정부의 성공적인 초장기 해외채권 발행 성공사례* 등을 통해 국제금융 시장에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자의 평판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됨.
- * 100년 만기 영국 파운드화 채권(14년, 10억 파운드), 100년 만기 달러화 채권(10년, 26.8억 달러)
- 2015년 9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235.9억 달러 (단기 60.4억 달러, 중장기 175.5억 달러)이며, 이 중 연체금액은 2.5억 달러(전체의 1.1%)로 공적수출신용(export credit) 연체비중은 낮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| 평가기관 | 최근 평가 등급 | | 종전 평가 등급 |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OECD | 3등급 | (2015. 10.) | 3등급 | (2014. 10.) |
| Moody's | A3 | (2015. 7.) | A3 | (2014. 2.) |
| Fitch | BBB+ | (2015. 8.) | BBB+ | (2014. 5.) |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62년 1월 26일 (북한과는 1980년 9월 19일 수교)

□ 주요협정 : 무역협정(1969년), 문화협정(1969년), 경제과학기술협정(1990년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95년), 범죄인인도조약(1997년), 외교관·관용사증면제협정(1997년), 투자보장협정(2002년), 항공협정(2003년), 세관협력협정(2006년), 형사사법공조협정(2007년), 원자력협력협정(2013년)

□ 교역규모

- 2015년 기준 對 멕시코 수출은 109억 달러, 수입은 35억 달러로, 1988년 이후 對 멕시코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주요 수출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, 철강관, 자동차부품 등이며, 수입품은 원유, 기타금속광물, 석유제품임.

□ 해외직접투자(2015년 12월 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331건, 41억 달러

<표 4> 한·멕시코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| | 2013 | 2014 | 2015 | 주요품목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출 | 9,727,377 | 10,846,018 | 10,892,170 |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, 철강관, 자동차부품 |
| 수입 | 2,300,742 | 3,268,495 | 3,471,728 | 원유, 기타금속광물, 석유제품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2015년 멕시코 경제는 전반적인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자동차부문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2.5%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미국경제 회복 지속, 폐소 약세 등에 힘입어 2.6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유가하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정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는 세계개혁안을 통한 비석유부문의 세수확대 노력과 지출 합리화 등을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을 2%대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세제, 에너지, 통신 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,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 및 OECD 등 주요기구들은 이러한 개혁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
- 그러나, 원유에 대한 높은 세수의존도, 사회 전반에 만연한 마약카르텔의 영향력에 기인한 치안불안, 만성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국민의 뿌리 깊은 정부불신 등은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꼽힘.
-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외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, 외국인직접투자액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선임조사역 이준석(☎02-6255-5705)

E-mail : joonsuklee@koreaexim.go.kr